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1. 26.(수) 석간(온라인 1. 26. 10: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1. 25.(화) 14:00			
담당	부처	부서	담당 과장	담당자
담당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지원과	이상국(044-202-6114)	주은정 연구관(6159) 나상민 사무관(6115)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김우철(044-960-6170)	허지수 사무관(6174)
	교육부	기획담당관	최홍윤(044-203-6636)	이가원 사무관(6058)
	행안부	디지털정부기획과	장경미(044-205-2702)	조현정 사무관(2714)
	문체부	미래문화전략팀	김나나(044-203-2391)	이규원 사무관(2393)
	농식품부	코로나19대책반	윤광일(044-201-1161)	장 미 사무관(1164)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정 권(044-203-4540)	최재혁 사무관(4542)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044-202-2420)	신현준 사무관(2412)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이승환(044-201-6330)	홍가람 서기관(6337)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	편도인(044-202-7210)	양세훈 사무관(7211)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이중기(044-201-3258)	이준혁 사무관(3260)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	정도현(044-200-5120)	엄의환 서기관(5121)
	중기부	제조혁신정책과	김민규(044-204-7250)	정아봉 사무관(7251)
	개인정보위	혁신기획담당관	강대현(02-2100-2451)	이재광 사무관(2453)

경제·산업의 체질과 국민 삶을 바꿔 온 디지털 뉴딜, 2022년에도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갑니다.

- 디지털뉴딜이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이끌며 미래 신산업 준비
 - 디지털 뉴딜에 22만여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성장이 이어지고, '닥터앤서' 등 세계 선도 사례 창출
- `22년 디지털 뉴딜 9조원(국비) 투자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박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6일(수)에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국가 혁신프로젝트'로, 정부는 2021년 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국비 44.8조원→49조원, ~'25년)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한 바 있다.

□ 그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의 주요 성과와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주요 추진 성과

□ 정부와 민간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7.14) 이후, 디지털 혁신 역량을 총결집하고 10.8조원('20추경~'21)의 대규모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해왔다.

- 디지털 뉴딜을 통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민간의 혁신 노력이 더해지면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경제의 회복과 산업의 체질개선, 국민 삶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① (경제활력 제고) '20년~'21년 간 추진한 주요 디지털뉴딜 사업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22만여 개의 기업·기관과 14만 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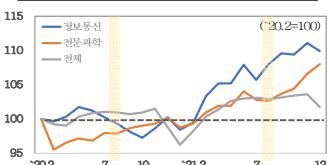
- 위기 상황에서도 디지털 생산과 수출('21년 ICT수출 역대 최대 기록)은 굳건히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비대면·디지털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디지털이 경기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다.

* 정보통신+전문과학 서비스업 고용 증감(월별 전년比, 만명 / 출처 : 고용동향)
:(21.3) 9.5 (4) 10.5 (5) 8.6 (6) 14.3 (7) 10.3 (8) 13 (9) 15.6 (10) 16.7 (11) 19.3 (12) 17.4

ICT 생산액·수출액 추이



비대면·디지털 고용변화 추이



② (新산업 성장) ‘데이터댐’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10억 건 이상의 분야별 데이터가 구축·활용되면서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서비스가 생겨나며 해외수출, 투자유치, 사업화 등의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조원)) (16)13.8 (17)14.4 (18)15.6 (19)16.9 (20)20.0 (18.7%↑)

해외주목	(펫나우) 데이터 바우처를 기반으로 CES ‘최고혁신상’ 수상
▪ 스타트업 ‘펫나우’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아 반려동물 정면 사진 12,000장을 수집·가공하여 강아지 코주름 기반 개체 인식 기술을 고도화하고, ‘펫나우’ 앱의 반려동물 객체인식률 향상	
→ 삼성전자 ‘캡 아웃사이드’ 스타트업 선발(21), CES ‘최고혁신상’ 수상(22)	
해외수출	(어노테이션AI)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베트남 8만\$ 규모 수출
▪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의 CCTV, 자율주행차 데이터(성남시청)를 활용하여 AI 학습용데이터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이미지 전처리 솔루션 개발과 자동화 기능 향상에 활용	
→ 베트남 8만불 규모 수출 및 20억 원 규모의 국내 매출 발생	
해외수출	(딥브레인AI) 인공지능 바우처를 통해 성장하여 중국 진출
▪ 인공지능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여, 법률, 방송, 교육, 쇼핑, 키오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 실사 기반 AI 휴먼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중소스타트업 등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사업저변을 확대	
→ 중국 방송사(베이징·칭하이)와 AI아나운서 공급 계약 체결(21.8월), 한국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500억원 규모 투자유치(21.9월),	
투자유치	(해빗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137억원 투자유치
▪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통해 실손 보험에 가입했지만 사용처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 기회를 제공(현재 누적 이용자수 15만명 돌파)	
→ K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누적투자유치 137억원(21.11월)	
성장지원	(라이드플릭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고도화
▪ 스타트업 ‘라이드플릭스’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으로 시간, 날씨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주행환경 객체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고도화(21)	
→ 고속주행(80km/h 이상) 포함, 국내 최장거리(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왕복 76km 구간) 운행 등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 구현에 기여	
생활혁신·사업화	(호갱노노) 국가종점데이터를 활용하여 아파트 실거래가 1등 앱 개발
▪ 스타트업 ‘호갱노노’는 국가종점데이터(고수요·고가치 핵심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매물정보 및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가격(최근 3달) 정보를 제공하는 ‘호갱노노’ 앱을 구현	
→ 월 평균 50만명이 이용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디앱 최우수상 수상	

③ (디지털 전환)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 바우처^{*}를 지원(15.1만개)하고, 스마트 공장(2.5만개)·상점(1.7만개)·공방(681개)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 비대면·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바우처 15.1만개 지원(20~21)

성과사례	(더프린팅) 스마트 공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스마트공방 사업을 통해 제작물 프린팅 기계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온라인 통합·주문/접수 시스템을 구축 → 고객이 주문을 결정하면 프린팅 기계가 자동으로 동작하여 생산성 50% 향상↑, 납기 단축 60%↓		

④ (국민편의·안전) 백신접종(4,445만명) 등을 안내한 국민비서 ‘구빼’, 정조의 화성행차 등을 박물관에 구현한 ‘문화유산 실감체험(208만명)’ 등 다양한 행정·문화·교육·보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성과사례	국민비서 서비스 ‘구빼’	
▪ 국민이 익숙한 앱을 통해 개인맞춤형 생활정보를 알려주고,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국민비서 개발(알림·상담 21종) → 백신접종(4,445만명), 국민지원금(1,347만명) 등 일정정보 제공(21.12 기준)		

○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수문을 여닫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1,101개소)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SOC도 전국 각지에 구축되었다.

성과사례	국민안전을 지키는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 충남 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의 배수문을 자동 제어 하는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 → 시간 당 91.5mm의 폭우에도 적기에 수문을 조작하여, 인근 농경지, 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22년까지 1,982개소 구축예정)		

⑤ (디지털 포용) 전국 천여 개 디지털 배움터에서 100만 명의 국민에게 키오스크 사용법 등 디지털 교육이 제공되고, 농어촌 통신망(8.4만세대), 공공 Wi-Fi 확충 등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성과사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 충남 서산 ‘고파도’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저속인터넷(20Mbps)을 초고속인터넷망(100Mbps)으로 개선 → 온라인 수업, 지역특산물 온라인 판매, OTT 활용 등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하여 생활편의 개선(1,284개 마을, 8.4만세대에 혜택)		

민간의 디지털 뉴딜 주요 분야 투자·참여 사례

- 디지털 뉴딜에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호응하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 영역의 연대와 협력이 진행 중

[디지털 인프라 투자]

- (초거대 AI) 네이버·카카오·LG·SKT·KT 등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 주요학계 등과 협력하여 연구소 설립 등 대규모 투자 진행
 - *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채널 'AI최고위 전략대화' 구성(21.9)
 - 과기정통부, 4차위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T, KT, LGU+, AI대학원 등 참여

네이버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 공개(21.5), 서울대-네이버, 카이스트-네이버 연구센터 설립
카카오	초거대AI 언어모델 'KoGPT'(21.11) 및 이미지 생성모델 'mimDALL-E'(21.12) 공개
LG	AI 연구원 설립, 초거대AI 개발 등에 1,200억원 투자 예정(21.5), 초거대AI 'EXAONE' 공개(21.12)
SKT	국립국어원과 협력, 1,500억 파라미터의 초거대 AI 'GLM' 개발 추진(21.4)
KT	카이스트 등과 AI원팀 운영, AI-SW 기술연구소 설립 및 초거대 AI 공동개발 발표(21.5)



- (데이터센터) 통신사·인터넷기업 등은 증가하는 데이터·클라우드 수요에 발맞춰, 전국 각지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
 - * 네이버(세종), 카카오(안산) 등 '21~'24년까지 28개 IDC 구축 예정(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 (5G 통신망) 통신3사는 5G구축 등을 위해 3년간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20.7)하고, 5G MEC 융합서비스 발굴 등 추진
 - 맞춤형 5G 융합서비스를 위한 이음 5G(5G 특화망) 구축에 네이버클라우드(성남, 제2사옥) 등 다양한 기업·기관이 참여
 - * 정부는 '이음5G 지원센터'를 개설하여(21.9) 기업의 5G특화망 도입 기술컨설팅 등 지원
- (스마트물류센터) 주요 택배사(CJ, 한진, 롯데), 물류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18개소 스마트물류센터 구축·투자(총 6,140억 투자)

[기업 간 연대·협력]

- (민간 데이터댐) 통신·카드·유통社 등이 모인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 '금융 데이터댐' 등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업 간 자발적 협력 진행
 - 1) SK텔레콤,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 모여 민간 데이터 협력(21.2)
 - 2) 우리은행,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 등이 모여 금융데이터 공유 활용 협업(21.5)
- (인공지능) 'AI One team*(KT, LG전자, ETRI 등)', 'AI R&D 협의체(SKT, 삼성전자, 카카오)'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한 협력 진행 중
 - * 'AI 원팀 서밋 2021'을 개최하여(21.11) 11개 기업·기관의 협력성과 등 발표
- (메타버스) 메타버스 시대 선도를 위해 민간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21.5)
 - * 총 720여개 기업·기관 참여, 프로젝트그룹 결성(104개) 및 사업기획서(89건) 제출(21.12)

[디지털 전환·일자리 창출]

- (펀드 조성) 현대차는 '미래차 뉴딜펀드(2천억원)', 신한금융은 '디지털 사업 투자펀드(3천억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기술 개발 등을 지원
- (기업 상생)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포스코 287개, 삼성 663개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 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기술협력 확대
 - * '상생기술마칭' 행사로 대중견기업과(36개) 중소기업간(121개) 150건 이상 기술협력 추진(21.11)

- 디지털 뉴딜을 통한 변화가 이어지면서 디지털 전환의 준비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국제지표 순위*도 상승하였으며,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26위(19)→7위(20), 국제정보보호지수(15위(19)→4위(21)) 등

- 대표 성과사례인 인공지능 의료SW '닥터앤서'는 사우디 진출¹⁾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생체기반 출입시스템을 갖춘 한국형 '스마트 공항'²⁾은 폐루에 수출되어 2021년 11월 착공식을 갖기도 하였다.

1) 문재인 대통령 사우디 순방 계기 '닥터앤서' 구매의향서 체결(1.19)

2) 폐루 친체로에 '한국형 스마트 공항' 1호 수출, 국내기업 등이 7,000억원 규모 수주

디지털 뉴딜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금융 “내 손안의 금융비서, 흩어진 금융정보를 쉽게 관리해줘요”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합니다.
 - 22년 15일, API 형태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사(금융회사, 펀드 등 34개사 서비스 제공)

교육 “교실에서도 스마트한 학습 활동이 가능해졌어요”

 전국 31.7만개 교실에 구축된 무선인터넷으로 디지털 학습을 실현합니다.
 - 38만개 초·중·고교에서 고성능 무선인터넷(2회선) 설치 완료, 태블릿 PC 21만대 보급등

의료 “병명도 모르던 우리아이, 인공지능 의사가 진단을 도왔어요”

 치매 등 8대 질환의 진단·치료를 지원하는 ‘닥터앤서’를 개발했습니다.
 - 22년, 8개 지역 거점병원으로 딱터앤서를 보급, 국내 성과를 바탕으로 사우디 수출 추진

문화 “실감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정조의 화성행차, 고구려 벽화무덤 등 박물관이 살아 움직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등 VR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체험관에 200만명(21.11) 체험

공공서비스 “국민비서 구찌가 맞춤형 생활정보를 제공해줘요”

 백신접종정보 등 21종의 상담·알림을 민간앱(기부금)으로 제공합니다.
 - 23년까지, 102종의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예전에급, 국제교류처 등)

인공지능 “데이터댐으로 똑똑해진 AI, 혁신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데이터댐,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혁신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 21년까지 AI 학습용데이터 5.3억건 구축·개방, 공공데이터 14.7만건 개방 완료
 → 스마트폰 빛나우는 데이터댐을 통해 반려동물 식별램프 개발하여 CES 최고혁신상 수상

스마트 공장 “디지털 기술을 통해 불량률이 줄고 생산성이 늘었어요”

 스마트 공장 2.5만개가 보급되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 22년까지, 10만 이상 제조 종사자 50%(3만명)에 보급 완료 (생산성 28%, 불량률 42%↓)

비대면 지원 “온라인 판로가 열리면서 매출이 늘었어요”

 컨설팅·홍보·입점지원등 소상공인 10만개사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 25년까지 스마트 상점 6만개, 스마트 공장 1만개, 소상공인 32만개사 온라인 진출 지원 추진

재난관리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이 홍수 피해를 막아줬어요”

 원격 수문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1,10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 22년까지, 전국 하천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1,982개소 구축 완료 / 모니터링 체계 3,060km 구축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 도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췄어요”

 경찰·소방 등과 연계되는 CCTV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보급했습니다.
 - 스마트시티 플랫폼(108개 지자체) 보급 완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240개) 실증 충

디지털 트윈 “3D/영상지도를 지도 앱부터 재난예방까지 꼭넓게 사용해요”

 주요 도시지역(47,150㎢)에 3D/영상지도 구축 등을 완료했습니다.
 - 포털(네이버, 다음) 지도 서비스, 홍수 등 재난 시뮬레이션, 지진피해 예측 등 재난 예방 등에 활용

II. 22년도 주요 실행계획

-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년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0조원(국비)을 투입하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 세부 분야별로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9조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0.5조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0.8조원, SOC 디지털화에 1.8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 또한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22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구분	투자(국비) (조원)				제도정비·규제개혁
	‘20년	‘21년	‘22년	‘20~ ‘25년	
① D.N.A 생태계 강화	1.3	5.4	5.9	33.5	▶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②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0.7	0.6	0.5	3.2	▶ 원격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③ 초연결 신산업 육성	-	0.5	0.8	2.6	▶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기밀정보보호법 시행령,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등
④ SOC 디지털화	0.4	1.8	1.8	9.7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지원 및 수산물유통법 개정 등
계	2.5	8.3	9.0	49.0	

1. D.N.A 생태계 강화 ('22년 5.9조원)

- (데이터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댐’을 더욱 튼튼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한다.
 - (구축·개방) 21년까지 구축한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5,797억원)하고, 전자판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누적 168개)를 추가 개방한다.
- * 경제·사회적 효과가 큰 핵심데이터로 활용 용이한 형태(오픈 API 등)로 정제가공 후 개방

- (활용·확산)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흘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국가 지식정보(29개 기관, 75개 사이트)를 연계하여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운영한다.

< 디지털 집현전 목표 서비스 모델(~'23년) >



- (5G·AI 융합) 다양한 산업, 행정 영역에서 5G, 인공지능을 통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활용·확산 사업들을 추진한다.

- (융합 확산)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을 확대(1개(충북)→6개)하고, 기존 인공지능 7대 융합 프로젝트(불법복제품 판독 등 7개 분야)에 더해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이 추진된다.

* 화학물질 재난사고 대응(과기정통부-소방청), 산림해충 방제 대응(과기정통부-산림청)

-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누적)을 완료하고,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을 육성(3,192억원)한다. 상반기부터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전기버스 3대)이 시작된다.
- 또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준공(부산 12월)되고, 55개 지능형 박물관 미술관,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책(점) 확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지능형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서울 서부, 대전운전면허시험장)하고, 7월부터 전국 시행한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 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기존 21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은 전국민으로 확대된다.(상반기)

2. 비대면 기반 확충 ('22년 0.5조원)

- ① (교육 디지털화)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확보한다.

-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고성능 WiFi 구축을 완료(2월)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10월~)을 추진한다.
- K-MOOC(200강좌 이상),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온라인 훈련콘텐츠 (430개) 등 평생·직업훈련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기초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 개발을 2월까지 완료한다.

- ② (스마트 의료) 그간 디지털 뉴딜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보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각 지역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20년 3개 지원분야)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1차 의료기관 40개, 2차 의료기관 4개), 닥터앤서 클리닉(8개 지역), AI 앱블런스(2개 시·도)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한다.

- ③ (중소·소상공인)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중소·소상공인을 돋기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 (온라인 진출) 온라인 페이지 제작, 컨설팅, 민간채널 입점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905억원)하고,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개를 추가 개설*한다.

* '21년 동남아 최대 플랫폼 쇼피, 일본 큐텐 등에 개설 완료, '22년까지 누적 11개(+5) 개설

- (소상공인 스마트화) 스마트 상점 약 5천개 보급을 추진(280억원)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스마트 공방은 지원 대상을 확대(599개→1천개)하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한다.

3. 초연결 신산업 육성 ('22년 0.8조원)

① (메타버스)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지난 1월 20일,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하여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

- (플랫폼 생태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新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2월~, 34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문화, 예술, 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168억원)한다.

<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예시 >



- (기반조성)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2개)과 실무·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180명, 교육생 모집 3월~)한다. 메타버스 기업 지원 거점인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으로 확산('22년 1개(관교)→ '22년 2개)하여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② (클라우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1만여개 정보 시스템(서버 등)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 '22년에는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2,402억원).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250억원)와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111억원)도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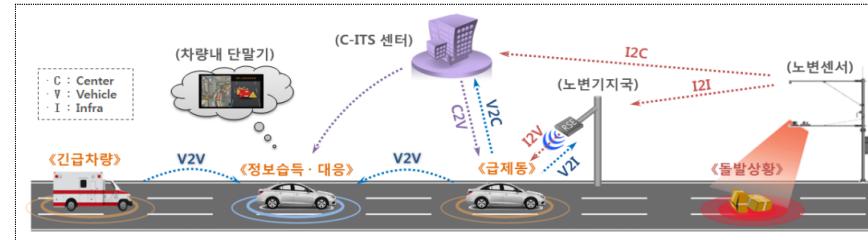
- (기타 신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 시범·확산 사업(24건, 213억원)과 함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에너지·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AIoT 핵심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183억원)

4. SOC 디지털화 ('22년 1.8조원)

① (국토 디지털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한다.

- (도로·철도) 국도 67%(9,350km)까지 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한다.(5,324억원)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IoT센서 구축을 완료한다.

<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C-ITS) 개념도 >



- (공항·항만)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하고,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항만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5월, 광양항)하고, 국가 어항 3개항(울릉, 신안, 통영)에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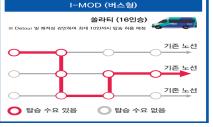
* 지능형CCTV 등을 활용하여 어항 노후시설 변형, 파손 등의 원격점검·유지관리 등을 지원

- (디지털 트윈) 지하시설물 지도를 77개郡(229억원)까지, 정밀도로지도는 일반국도까지 구축 완료(160억원)한다. 다양한 트윈 간 연계를 위한 연합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산단 등에 트윈을 적용·실증(163억원)한다.

② (도시·물류) 국민 삶을 바꾸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를 확산하고, 육상·해운 물류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 (도시)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데이터 허브)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35개 지자체에 발굴·보급한다.(1,176억원)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성과 사례 >

인천	▶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대기 시간 단축(78→13분) 등 효과 ⇒ 송도, 남동 국가산단, 검단 신도시 등 대중교통 취약지구 전반으로 확대	 
부천	▶ 마을기업 주도의 민간·공공·인근 거주자 주차장을 통합한 공유주차 서비스 도입으로 불법주차 48% 감소, 주차장 수급률 72% 증가 ⇒ 시 전역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 (물류) 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천안)를 준공(12월)하고, 항만배후 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착공(인천항, 12월)한다. 항만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3월부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은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③ (국민안전) 위험지구별 실시간 위험정보를 자동계측·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조기경보시스템(22년 170개소, 누적 510개소)과 하천 수위에 따라 배수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22년 881개소, 누적 1,982개소) 구축을 완료한다.

○ 금번 제13차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디지털 뉴딜 2.0에 따른 주요 사업의 최종목표, 성과 등을 보완한 「디지털 뉴딜 성과로드맵 2.0」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아울러 다양한 민·관 협력 채널*을 통해 민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고, 기업·기관들의 디지털 뉴딜 참여를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

○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관계부처 합동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3.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2022년에도 디지털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지속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은정 연구관(☎ 044-202-6159)
나상민 사무관(☎ 044-202-61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2년 디지털 뉴딜 주요 추진과제

`22년 디지털 뉴딜 이렇게 추진됩니다

D.N.A 기반 + 新산업 육성



분야별 디지털 활용·확산

